

“성역화·순교사 일반화 등 이면을 보자”

불교평론 열린논단, ‘교황 방한’ 주제로 토론

“교황 방한 이면에 한국천주교의 성지화 작업이 가려져 있다. 가톨릭 순교사를 일반화 시키고 있다.” - 이창익 교수

“교황 방한에서 한국불교의 현실이 드러났다. 우리는 화쟁을 얘기하며 사회에 개입하지만 안으로는 더 썩어가고 있다. 진정한 화쟁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다.” - 동출 스님

“교황 방한은 감동과 스토리가 있는 일종의 쇼다. 우리도 이러한 감동의 쇼를 하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 방영준 교수

교황 방한이 불교계에 던진 메시지는 무엇일까. 불교계 지성인들이 모여 교황 방한의 의미와 종교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불교평론>이 9월 18일 서울 강남 불교평론 세미나실에서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이 한국 종교계에 던진 화두’를 주제로 연 9월 열린논단에서는 교황방한에 대한 평가와 향후 종교계의 발전방안이 나왔다.

방한 이면에 천주교 성지화 작업 먼저 이날 기조발제를 맡은 이창익의 한림

대 생사학연구소 HK연구교수는 “가톨릭계가 광화문이라는 국가적인 상징공간에서 시복식을 거행하는 것에 대해 시민 일부는 불편하게 생각했다”며 “이후 광화문 광장이 종교적 의식 장소로 변질될까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번 교황 방한 이면에는 한국천주교의 ‘성지화 작업’을 포상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있다”며 “조선시대 암자였지만 불교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천주교 천진암 성지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한 종교의 성지화 작업이 다른 종교나 시민사회의 공간을 뺏는 것임을 직시해야 진정한 종교화합과 평화가 온다”고 지적했다.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은 정치가 종교를 이용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교황 방한에 대한 열기도, 정치권의 여론몰이 영향이 컸음을 밝혔다.

장 원장은 “사실 교황은 종교인으로서의 일반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을 뿐”이라며 “교황 방한일정을 정치권이 서로 이용하기 위해 언론을 통해 열기를 고조시켰고, 미디어에 의한 과한 열기는 오히려 교황 방한 이후 한국사회가 변화없이 차갑게 식어버린 결과를 낳았다”고 분석했다.



9월 18일 토론을 진행하는 열린 논단 참석자들

교황 방한에 대한 다양한 해석 “가톨릭 신자 순교사 일반화 성역화 작업... 천진암 대표 사례”

현대사회 종교들은 희생을 했는가 기존 종교 불만이 ‘국민 열광’ 이유

방영준 성신여대 명예교수는 반대로 이러한 일종의 신드롬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방 교수는 “교황 방한이 감동과 스토리가 있는 일종의 쇼라면 한국종교계가 어떻게라도 감동을 주는 데 앞장서야 한다”며 “시민들이 여론에 휩쓸리지 않고, 냉철하게 바라보는 시각도 함께 갖추도록 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종교가 스스로 희생하는 시대대야
토론회에서는 국가적인 심적공백 상태에서 종교계가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화두로 진행했다.

배광식 서울대 명예교수는 “종교는 신심을 바탕으로 한 개인을 희생해 유지돼왔지만 이러한 개인들을 위해 종교가 희생하는 모습은 거의 없다. 종교가 대형화되며 서로 평화를 얘기하지만 정작 그 안에는 평화가 사라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동출 스님도 “불교계에서 화쟁을 얘기하며 쌍용차 문제 등 사회문제에 개입하지만 정작 종단 안으로는 더 썩어가고 있다. 진정한 화쟁은 우리부터 깨끗해 질 때 시작된다”고 말했다.

하춘생 박사도 “교황방한에 시민들이 열광한 것은 기존 정치지도자나 종교계가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류종민 중앙대 명예교수는 “세월호 사태로 인한 심적 공백 상태에서 종교적 대응이 미흡했고, 그 이후 과정에서 교황 방한이 이뤄졌다. 앞으로 국가적인 심적 공백 상태에서 종교계가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를 찾는 것은 남은 과제”라고 제시했다.

노덕현 기자 nodu@hyunbul.com

조계종 20년 위한 제언 사부대중 토론회 열린다

조계종 종단개혁2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10월 1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종단 개혁발사의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향후 종단의 미래를 진단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4월 10일 '94년 종단 개혁의 의미와 성과' 주제 1차 세미나, 7월 10일 '개혁 불사 20년, 무엇이 변화했는가' 주제 2차 세미나에 이은 세 번째 세미나다.

추진위는 “종단개혁의 의미와 성과를 조망하고 종단의 미래 방향을 정리함으로써 종단개혁의 성과를 이어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종단의 미래 지향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통해 개혁 정신에 근거한 종단의 미래상을 구현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94년 개혁의 주제로 참여했던 교육원장 현승근이 ‘종단의 미래 20년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기조발제하고, 윤승룡 교수와 일문스님(중앙총회 총무분과위원장), 류지호 월간 불광 주간, 박재현 월정사 종무실장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신성민 기자

손 맞잡고 한마음...종교화합·희망 노래

종지협, 제18회 종교문화축제

“이 땅의 끝에서 모두 다시 만나면 우리는 또 다시 동글게 뭉개구름 되리라~”

서울 청계광장에 국민·종교간 화합을 기원하는 ‘뭉개구름’ 노랫소리가 30명의 다문화 어린이 합창단에 의해 울려 퍼졌다. 제18회 대한민국종교문화축제가 9월 13일 개막한 것.

매년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대표회장 자승)가 주관하는 이 행사는 불교, 기독교, 천주교, 유교, 원불교, 천도교, 민족종교 등 7대 종단이 참여한다.

올해는 ‘너, 나 그리고 우리의 희망’이라는 주제로 종교 체험관, 종교문화사진전, 희망연서쓰기, 콘서트 등이 개최됐다.

자승 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종교문화축제는 상생과 공동체 정신,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축제다. 크고 작은 사건으로 인한 아픔과 경기침체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국민들이 이번 축제덕분에 마음이 넉넉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종지협은 9월 13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제18회 대한민국종교문화축제를 개최했다. 사진은 불교 등 7대 종교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

오후 6시부터는 축제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희망콘서트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소외계층 2백여 명이 초청돼 여성성직자 모임인 ‘삼소회’, ‘레인보우합창단’, 비보이 ‘라스트포원’, 퓨전국악 ‘하나연’, 아이돌 그룹 ‘데인보우’ 등의 공연을 즐겼다. 앞서 오후 1시부터 진행된 종교 체험관

에서는 종이 연꽃 만들기, 티셔츠 프린팅, 목주 만들기, 한복 입기 등이 각 종교 특색에 맞춰 진행됐다. 불교 부스에서는 이날 준비한 1천개의 연꽃과 단청이 동남 정도로 연꽃 만들기와 단청 그리기가 가족 단위 체험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승산 스님 전 세계 제자 ‘한곳에’

계룡산 무상사, 승산 스님 열반 10주년 세계일화대회

한국불교 세계화의 산증인인 승산 스님 <사진>의 열반 10주년을 맞아 전 세계 제자들이 한곳에 모인다.

국제 관음선원과 계룡산 국제선원 무상사(주지 대봉)는 오는 10월 18일부터 19일 충남 공주 태화산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제10회 세계일화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덕숭총림 수덕사와 화계사가 공동 후원한다.

세계일화대회는 1987년 승산 스님이 전세계 제자들에게 일상생활에서 불교수행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기 위해 시작한 국제선불교장으로 3년을 주기로 세계 각지를 순회하며 개최돼 왔다.

올해 대회 주제는 ‘세세생생 보살도’로 미국, 독일, 호주, 이스라엘,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세계 16개국에서 300여명이 등록했다. 여기에 승산 스님의 열반 10주기와 맞물리며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세계일화대회는 본회의와 워크숍, 부대 행사 등으로는 나눠 이뤄진다.

10월 18~1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참선수행과 직업’과 ‘젊은 층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된다. 10월 25일 서울대에서는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참선 실수 워크숍이 열린다. 또한 10월 20일에는 계룡산 무상사에서 승산 스님 열반 10주년 추모 다례제가 봉행되며 석남사, 범어사 등 한국 사찰을 순례할 예정이다.

대회 본회의와 워크숍에는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설경 스님을 비롯해 계룡산 국제선원 무상사 주지 대봉 스님과 리처드 슈워보(뉴욕 공인 심리요법가), 신성민(미국 하버드대학교 학생 심리상담사), 크리스탈 고(던컨대 신경과학 박사), 잔 세츠미르(환경기후통제 연구학자) 등이 참석해 발제와 토론을 진행한다.



10월 18~19일 대회 본회의

10월 20일 승산 스님 추모제

서울대서 참선 실수 워크숍도

무상사 주지 대봉 스님은 “이번 대회는 불교적 가르침으로 현대사회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을지를 보여줄 것”이라며 “또한 젊은 세대에 참선수행이 어떻게 직업을 포함한 일상생활과 직접 연관되고 적용되는지를 알려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엄연한 ‘寺址’ 인데 연등 철거 요구라니

여주지역 성당 “주어사지 연등 제거” 요구 ‘물’의

2교구 신도회 14일 철거 막아

“가톨릭 전파에 불교 도움”

가톨릭계가 여주 주어사지 원형복원 기도를 위해 불교계가 설치한 연등에 대한 철거를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다.

조계종 제2교구신도회(회장 민학기)는 최근 여주지역 한 성당으로부터 주어사지에 설치된 연등을 철거해달라는 요구사항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한국천주교회가 정한 ‘순교자 성혈’을 맞아 14일 60여명의 신도들이 주어사지를 방문하니 불교관련 설치물을 거둬달라는 요청이었다.

주어사지는 조선시대 스님들이 가톨릭 신자들을 보호하다 폐사된 곳으로 7월 6일 조계종 제2교구신도회의 복원기도 입재 이후 수원 용주사 등 지역 사찰들이 월

2회 정기 순례기도를 이어가고 있는 곳이다. 14일 교구신도회 관계자들은 주어사지를 방문해 천주교계에서 기도를 하는 것을 지켜보고, 연등 철거를 막았다.

천주교 수원교구 최덕기 주교는 “이곳이 종교화합의 성지로 가꿔졌으면 한다. 이웃종교 입장에서는 특정종교를 상징하는 시설물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연등을 철거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학기 제2교구신도회장은 “가톨릭이 이 땅에 전래되는 과정에서 한국불교의 희생도 있었다. 이러한 역사적

인 사실도 함께 복원돼야 한다”며 “지난 가톨릭 성역화 사업으로 불교흔적이 완전히 사라진 천진암에 대한 재조명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2교구신도회는 경기도와 여주시에 주어사지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된다는 건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사)대한불교 통합선교종 제2차 임시총회 결과 공고

- 총회 일시 : 2014년 9월 18일 오후 2시부터
- 참석 인원 : 총원 104명 중 93명
- 총회 진행 : 사회 - 총무부장 광은, 집전 - 교무부장 법광
- 총회 장소 : (사)대한불교통합선교종 총무원 회의실 (충남 천안시 목천읍 세종로 4928)
- 참석총회 주관 : 임시의장 상원(이동규) 부이사장
- 총회 공증 : 청암 법무법인 도병수 변호사

▶ 안건 및 의결 결과 ◀

1. 前 이사장 성각(오주상)스님 해임의 건

□ 발의 : 법인정관 제23조 제1항에 의거, 이사장 및 이사직의 사임과 탈종교고를 했으므로 본 법인의 명예를 훼손한 오주상 전 이사장의 해임 건.

■ 의결 : 제명처리 (전원 찬성)

2. 법인 증명 개정의 건

□ 발의 : 법인정관 제30조 제4호에 의거, 법인 인감 분실로 인한 추후 사고 예방과 군소종단을 벗어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 개정의 건.

■ 의결 : 제1안 사단법인 대한불교 선교종, 제2안 사단법인 한국불교 선교종으로 증명 개정 의결 (전원 찬성)

3. 법인정관 수정의 건

□ 발의 : 법인정관 제30조 제4호에 의거, 정관의 오타 및 중복 등재된 내용 수정과 운영상 필요한 부분을 추가, 변경의 건. 제4조(사업)불필요한부분 삭제, 제7조(회원의 의무) 신설, 제9조(회원의 상벌) 보완, 제11조(임원의 선임)신설, 제12조(임원의해임)보완, 제17조(이사장의직무대행)보완, 제19조(총회의구성)삭제, 제21조(총회의소집특례)보완, 제22조(의결정족수)보완, 제23조(총회의기능)보완 및 신설, 제26조

(구분및소집)보완 및 신설, 제27조(이사회소집의특례)보완, 제28조(서면결의)보완, 제29조(의결정족수)보완, 제30조(이사회의의결사항)보완 및 신설, 제33조(수입금)보완, 제41조(법인해산)보완, 제42조(정관변경)보완, 부차신설, 이상 19개 항목에 대한 수정 보완.

■ 의결 : 수정 보완 의결 (전원 찬성)

4. 신임 이사장 선출의 건

□ 발의 : 본 법인의 신임 이사장직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출 : 화엄(김광옥)스님 (추천에 의한 전원 찬성)

신임 이사장 화엄(김광옥)스님의 인사말씀

명실상부한 한국불교의 중추종단으로 거듭나기 위해 새로운 각오로 정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종단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언제나 원만한 대화와 협력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책임과 의무를 다해 한마음으로 하나되는 종단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불기 2558(2014)년 9월 18일

(사) 대한불교 통합선교종 총무원장 삼주